

■ 2026 새해설계 조상래 곡성군수

“남녀노소 머물 수 있는 ‘활력도시’ 곡성 만들 것”

매월 기본소득 15만원 지급…소상공인 매출 기대
곡성읍 빛마루센터 등 준공·부자 농촌 만들기 집중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 아이들
이 다시 돌아오는 고향. 노년까지 편안하
게 머물 수 있는 활력도시 곡성을 만들겠
습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신년사에서 “기본
소득을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모델
로 완성해 누구나 고향에서 당당하게 꿈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곡성다운 미래를 열
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해 곡성은 전 군민에게 매월 기본소
득 15만원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곡성에서의 소비가 골
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진다.

올해부터 전 군민 버스 무료화를 전면
시행해 군민의 이동이 편해지고, 지역 곳
곳이 더 가까워지며 생활의 질이 눈에 띄
게 높아질 것이다.

장날 어르신 버스 도우미도 6명으로
확대 배치해 어르신의 외출이 더 안전하
고 편리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심정 상품권 기맹점을 확대하고, 지난
해 큰 호응을 얻었던 전통시장 카드 결제
서비스도 더 넓혀 시장 이용의 불편을 줄
이고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를 이끌겠다
는 구상이다.

특히, 기본 소득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
가 늘어나는 만큼 농협과 협력해 소비 접
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
는 이동장터’를 운영한다.

이동 장터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
고, 식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식품 사
막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곡성읍 빛마루센터와 오탁면 행복이음
터 등 생활 거점 공간을 올해 준공하고,



기초생활 SOC 투자도 지속해 정주 여건
을 더욱 탄탄히 한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자원사업은 올
해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군민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농업인이 대

우받는 부자 농촌 만들기에 집중한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
절근로자를 90명까지 확대해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다.

임면 스마트팜 거점 단지는 올해 조성
을 완료해 청년 농업인이 미래 농업을 선
도하고 AI 스마트 재배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

블루베리 장기 출하 체계 정착, 멜론
스마트팜 지원, 딸기·체리·찰옥수수·단
감 등 지역에 적합한 특화 작목을 육성해
제값 받는 농업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곡성물은 입점
확대와 판촉 지원을 늘려 온라인 판매 실
적을 한층 높인다.

또 농산물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직거
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나선다.

농번기 공동급식도 대상마을을 확대하
고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개소수
도 더 늘려서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든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철도공원 조성을
올해 마무리하고, 기차 플랫폼과 연계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 단순 방문이 아닌
머무르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생태형 산림관광 정원과 장미공원, 동
화정원을 연계한 정원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해 2031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에 도전한다.

특히 장미는 관광을 넘어 산업으로 키
워 시제품 개발과 원료 생산 기반을 마련
하고 장기적으로 품종 개발과 장미연구
소 설립을 추진한다.

군은 곡성세계장미축제 프로그램 수를
대폭 확대하고 심정어린이대축제도 더욱
알차게 준비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준비한다.

축제 개최가 지역 상가에서 관광객들
의 자연스러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상권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정해박해 200주년을 기념한
순례 코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
배달 사업과 버스킹 등을 통해 지역 고유

의 자원을 활용한 군민 문화 여가 향유
확대에도 힘쓴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으로
부모의 긴급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
의 안전한 성장을 책임진다.

어르신 복지도 더욱 세심하게 챙긴다.
경로당 운영 지원, 찾아가는 마을 주치
의 서비스를 추진하고 곡성형 3S 스마트
맵을 활용한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을 더
욱 강화해 노년에도 편안하고 존엄한 일
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군은 ‘바로폰’과 ‘유난히 좋은 날’을 적
극 활용해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
장에서 답을 찾는 공감행정을 실천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올해 곡성군은 삼
국지의 명장 관우의 적토마처럼 묵묵하
게 힘차게 전진하겠다”며 “기본소득과
버스 무료화, 계절근로자 확대 등 을 한
해 추진할 모든 정책이 군민의 삶에서 분
명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
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news1@gwangnam.co.kr



고흥군은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에 대비해 산림휴양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고흥, 산림휴양 네트워크 구축 속도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준비

고흥군은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에 대
비해 산림휴양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
련하고 있다.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은 천등산 일원
약 277ha에 조성될 예정으로, 광주·전남,
부산·경남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산림복
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립 최초 해안
형 산림치유원이다.

2026년 정부 예산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되며, 사업은 본격적
인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
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
면 총 1002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산촌교
육센터, 해수치유센터, 산림휴양관 등 대
규모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군은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팔영산

자연휴양림, 팔영산 편백 치유 숲,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등 기존 산림휴양시설과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팔영산·마복산 일대를 중심
으로 치유·휴양·체험·교육 기능이 집적
된 산림휴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체류형 산림휴양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산림휴양 펠트 및 산림휴양 클러스터로 만
든다.

군 관계자는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은 고흥군 산림휴양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국가 산림치유
정책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산림휴양 거
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보성물, ‘말차’ 중심 차별화 전략 통했다

지난해 매출액 22억 기록…전년보다 12% 증가

말차 제품 50% 이상 급증…전체 판매 실적 견인

보성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
‘보성물’이 지난해 매출액 22억원을 돌파
했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물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2억원
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보성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인 ‘말차’ 중심 전략이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말차
소비 흐름에 맞춰 관련 상품을 집중적으

로 홍보하고 육성한 결과, 보성물 내 말차
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
며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보성물은 높은 재구매율을 바탕으로 안
정적인 성장 구조를 구축했다.

명절 시즌 최대 20% 할인 행사를 비롯
해 신규 회원 가입 시 3000p 지급, 구매
금액의 3% 적립, 출석 체크 포인트 지급,
후기 작성 포인트 지급 등 고객 친화적인
혜택과 이벤트를 통해 충성 고객층을 확

보하고 있다.

온라인의 한계를 넘기 위한 오프라인
홍보 전략도 났다. 보성물 회원 유치와
지역 농특산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
국 각지의 대규모 박람회에 참가하고, 수
도권 등 주요 도시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왔다.

소비자들이 현장
에서 직접 제품
을 보고 ‘정보
무늬 (QR 코
드)’로 바로
구매할 수 있
는 환경을 구축



현재 보성물에는 180여개 업
체, 1000여개 품목이 입점해
있으며, 청정 자연에서 키
운 보성 차(茶), 키위,
쪄막, 녹두, 울버썰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온
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
다. 보성=임태형 기자

한 결과 전년 대비 회원 수가 10% 증가한
것도 매출 상승의 밑거름이 됐다.

군은 올해 ‘보성물 제2의 부흥기’로 정
하고,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
이다.

인플루언서 협업 마케팅을 통해 젊은
소비층 유입을 가속화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와 상품 검증을 강화해 ‘보
성물 제품은 믿고 산다’는 브랜드 이미지
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순천, 마스코트 ‘루미·퐁이’ 활용 지역 먹거리·브랜드 육성



4개소 각 250만원 지원

순천시가 지역 마스코트 루미·퐁이를
활용한 포장지 제작 지원을 통해 순천 특
화 디지털 상품을 육성하고 먹거리 브랜
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순천 먹거리
홍보 포장지 제작 지원 사업 참여 대상자
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제과·제빵·커피 등 지역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상품에 순천시 마스
코트를 활용한 홍보 포장지를 제작·지원
해 디지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
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업소로 총 4개소를 선정해
포장지 제작·구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
다. 선정된 업체에는 1개소당 250만원 한
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접수
는 관광과 미식관광팀(순천시 중앙로
232, 삼산도서관 4층) 방문 또는 이메일
(guswo5151@korea.kr) 접수로 가능
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
역 디지털 상품에 캐릭터를 입혀 관광객
의 구매 욕구를 높ی겠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순천
을 대표하는 먹거리 브랜드를 만들 계획
이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장흥의 보물 ‘풍아익’ 실물콘텐츠 제작

국비 16억7000만원 투입…연내 사업 완료

조선 전기 시문학 교육서이자 국가 보
물인 장흥군의 ‘풍아익’이 올해 동산문화
유산 실물콘텐츠 제작사업에 최종 선정
됐다.

‘풍아익’은 조선시대 시문학 교육 교과
서 역할을 수행한 책으로, 세종 24년
(1442) 초추갑인자로 간행된 후 명종 8년
(1553)에 다시 간행돼 조선 중기 문신 백
광충에게 하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내에 전해지는 유일한 완질본
(15권 10책)으로, 학술적·문화재적 가치
가 매우 높아 2010년 국가 보물 제1664호
로 지정됐다.

장흥군은 지난 2023년 이후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장흥 풍아익 실물콘
텐츠(영인본) 제작사업을 기획해 지속적
인 사업 신청 끝에 지난해 12월 순수 국비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국가 지정 동산문화
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실물콘텐
츠(영인본·모사본) 제작과 제작 완료 후
이를 활용한 대국민 전시다.

올해는 풍아익 등 총 6건의 동산문화유
산을 선정해 총 사업비 16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1월 중 국가
유산청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후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풍아익 실물콘텐츠
제작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역민과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며 “노벨 문화 도시 장흥의
수준 높은 지역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